

## 웅동 중학교 방문

지혜, 용기, 겸손, 사랑이 대통령을 만드는 기본 덕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3학년도 있습니까. 3학년은 저랑 두 번째 보죠? 제가 2001년 6월 29일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때 대통령되면 다시 온다고 약속했지요. 그때는 쉽게 올 줄 알았는데 대통령되고 나서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래도 약속 지키려고 해군사관학교 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약속 지켰죠? 이제 여러분께 도움 될 얘기를 해야죠. 지난번에는 한 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수업이 50분 이어서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자세 흐트리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동중학교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꿈은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훌륭한 대통령으로 링컨을 뽑습니다. 언제 물어도 링컨이 항상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 저처럼 멋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골뜨기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링컨의 머리칼은 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링컨의 특별한

점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도전했고, 어렵고 힘들어도 도전했습니다. 또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전쟁을 안 하면 나라가 쪼개지고 전쟁을 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민을 37일간 했고 취임 전부터는 두 달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지만 결국 전쟁을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용기를 갖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망침으로 현명해야 합니다.

틀린 판단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필요할 때 자기희생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대통령이 되려고 결심하지 않았습시다. 저도 할까 말까 했는데 됐습시다.

앞으로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은 국민이 안 뽑습시다.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가다듬으면 억지로 사람들이 대통령 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